

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	
		보 도 자 료			
배포일시		2016. 1. 26(화) 총 3매(본문2, 붙임1)			
담당 부서	해외건설지원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병석, 사무관 공경화, 주무관 김범규 • ☎ (044)201-3529, 3534		
보 도 일 시		2016년 1월 27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7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	

이란 건설시장 진출지원 간담회 개최

정부-금융기관-업계, 삼각 협력으로 이란 진출 방안 모색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우리 기업의 이란 인프라·플랜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.27(수) 16: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“이란 건설시장 진출지원 간담회”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(김경욱) 주재로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과 건설 기업, 해외건설협회 등 해외 건설 관련 유관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.
- 지난 1.17(일)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며 새롭게 열린 이란 시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·플랜트 수주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.
 - * 이란 건설시장은 제재 해제 이후 ‘16년 500억불 규모에 이르고(’13년 415억불 → ’14년 483억불 → ’15년 461억불 → ’16년 496억불 예상, Global Insight), 이후 매년 3% 이상의 성장률 기록 전망(BMI ; Business Monitoring International)
- 이란 정부는 사업의 수주 전제 조건으로 투자 및 금융 조달,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어, 성공적인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금융기관, 기업, 정부간 공동의 수주전략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.

-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 방안이 신속하고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금융약정 진행 상황과 효과적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,
- 우리 기업들의 중점 추진 사업과 진출 시 애로 사항, 지원 요청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대이란 지원정책 등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란 핵협상 타결 다음달인 지난해 8월 장관 단장의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재개를 위한 건설 외교를 실시한 바 있고,
- 당시 논의된 수자원 및 신도시 분야의 전문가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”고 밝히며,
 - * 한국수자원공사-이란 에너지부간 「수자원 협력 양해각서(MOU)」 체결(’16.1.23)
 - * 한국토지주택공사(LH)-이란 NTDC(New Town Development Corporation, 도로도시개발부 산하 공사) 신도시 사업 협의(’15.12)
- “앞으로도 사업 구체화를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, 마스터플랜 수립, 정부 및 공기업간 기술 교류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☐ 간담회 개요

- (일시·장소) '16.1.27(수), 16:30~18:00,
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2(지하2층)
- (참석자) 건설정책국장 주재
 - (국토부) 해외건설지원과장, 해외건설정책과 사무관 등
 - (수은) 플랜트금융1부장
 - (무보) 프로젝트금융총괄부장
 - (기업) 대림산업, GS건설, 현대건설 등 건설기업(10여개) 임원급
 - (해건협) 본부장, 지역2실, 금융지원처, 프로젝트지원처 등

☐ 주요 논의 사항

- 이란 건설시장 현황 및 진출 지원 방안(국토부)
- 포괄적 금융·보증 약정 진행상황 및 운영 방향(수은, 무보)
- 중점 추진 사업 현황 및 애로 사항(기업)
- 기타 : 정부 지원 요청 사항 등